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도시숲 조성 · 관리
심의위원 14명 위촉식 개최

정읍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8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녹색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이날 시청 2층 단풍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알렸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의 전문가, 시의원, 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국유지 도시숲 담당자, 관련 부서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직후 이어진 첫 회의에서는 옹동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

소외된 이웃의 안전을 가폭처럼 살피는 정읍시의 따뜻한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사무 평가’에서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지원 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위 3개 우수 시군을 선발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읍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범죄 예방 진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정읍시는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6000억 시대 개막

역대 최대 규모 6402억 확보... 전년 대비 860억원 증가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부안군은 2026년 국가예산 6402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60억원(15.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새 정부의 공모사업 중심 예산 배분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사업 증액과 신규사업 반영을 이끌어낸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총 300억원) 및 어촌회복형(총 82억원), 청년특화주택(총 354억원), 농공단지 청년친화형 임대기숙사건립사업(총 100억원), 정호수 스마트복합원터 조성(총 46억원) 등 4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00억원 규모를 확보해 청년·정주·해양·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군은 미래 에너지 기반 구축과 새만금 3권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

수소도시 지원 70억원(총 4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2억 6000만원(총 40억 5000만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35억원(총 2288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915억원(총 1조 1287억원), 가력 선착장 확장 267억원

(총 1046억원), 가력항 국가어항 개발 9억원(총 182억원)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새만금 제3권역 개발을 촉진하고 부안의 산업 구조 전환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부안백산성지 역사문화권 조성(총 80억원), 적벽강 명승 역사문화권역 정비(총 50억원), 줄포만 갯벌 식생복원사업(총 51억원),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전당 건립 28억원(총 222억원), 갯벌지유센터 조성 22억원(총 170억원),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건립 20억원(총 134억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21억원(총 66억원), 격포항~궁항 해양탐방로 조성 6억원(총 104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부안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 브랜드 가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지역 산업 인프라 보장을 위한 신규사업 역시 대거 포함됐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23억 4000만원(총 468억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억원(총 217억원), 줄포만 도시재생사업 5억원(총 250억원), 읍

면 LPG 배관망 구축 7억 2000만원(총 36억원), 석불산 파크골프장 조성 3억 6000만원(총 20억원), 스마트 Safe Beach 구축 6억 2400만원(총 14억원) 등이며 이들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 부처·기재부 단계별로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며 전방위적 설득 활동을 이어왔다.

국회 단계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함께 원위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예결위원장,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호영·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치권과 원팀 전략을 구축해 예산 증액과 신규 반영을 이끌어냈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국·도비 예산 확보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내년에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국가예산 사업을 통해 부안만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희망찬 2026년 시작을 밝히다

‘변화와 도약, 미래를 여는 고창’ 주제... 군청사 경관조명 점등식

고창군이 지난 8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2025 군청사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 희망찬 2026년의 시작을 밝혔다.

올해 점등식은 ‘변화와 도약, 미래를 여는 고창’을 주제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군정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기관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군청 광장을 비롯한 회전교차로 일대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점등되며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를 밝히게 된다.

특히 올해 조명은 높이 약 11m, 폭 4.5m 규모의 대형 트리과 다양한 LED 장식물로 구성되어, 군민과 방문객에



게 겨울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점등된 조명은 2026년 2월 말까지 매일 저녁 자동 점등된다.

고창군수는 “2026년에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점등식을 통해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연말연시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복분자음, 국제청 K-술 어워드로 ‘우수상’ ‘수상

고창군 대표 특산물 복분자, 명품화 · 세계화 기반 마련

고창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로 빛을 과실 주 ‘복분자음(제조사 배상면주)’이 국제청 주관 ‘K-술 어워드’ 과실주 · 맥주류 부문에서 우수 주류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복분자음’은 고창 복분자를 정제·발효해 만든 프리미엄 과실주로, 깊은 풍미와 향을 살린 제품이다.

특히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과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고급 주류로 구현해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상 제품에는 국제청이 공식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향후 해외 홍보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로 만든 배상면주가의 복분자음이 대한민국 대표 K-술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고창 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부안군 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기철)는 지난 8일 소노밸변산에 메탈드홀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3회 변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로 올 한 해 주민자치 활동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총 7개반 수강생들의 무

대로 1년간 주민자치센터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변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음악나타, 풍물, 색소폰, 요가, 다문화 한국어, 라인댄스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사회의 질적, 양적 주민 참여 성장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민생지원금, 경제 회복 마중물 효과 ‘톡톡’

시민 약 69%가 지원금 외 평균 39만원 추가 지출... 지역 소비 심리 회복 · 자금 순환 이끌어

정읍시가 지난해 전 시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역경제의 혈액 순환을 돕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제로 시민의 약 69%가 지원금 이외에 평균 39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최근 대한경영정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원금이 시민에게 미친 영향을 ‘인지기반 정책수용성 경로’를 통해 검증했다. 이는 지원금을 사용하는 태도와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이 어떻게 실제 소비 지출 변화와 정책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지원금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게 안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 회복 체감도와 지역경제 기여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심리적 만족감과 공동체적 연대감이 정책 성공의 열쇠임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체감하는 효과의 차이도 뚜렷했다. 상권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권(동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즉각적인 소비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당장의 소비 확대보다는 ‘경제적 안정감 회복’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시 생활권과 소비 패턴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 역시 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했다. 조사 결과 지원금 지급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급증했으며, 음식점, 마트, 생활용품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동 지역 상권에서는 신규 고객 유입과 회전을 향상이 두드러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소비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단단한 토대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과 연계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소비 촉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필수재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충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